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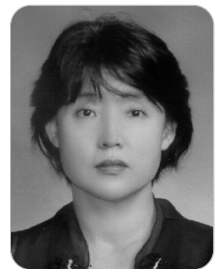
2007더반세계도서관정보대회 참가기

도서관에 근무하며 내가 꼭 하고 싶었던 일 가운데 하나가 IFLA가 주최하는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에 참가하여 전 세계 도서관인들의 축제를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느껴보는 것이었다. 작년 서울에서 개최하였을 때도 나는 아쉽게 참석할 수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개최하는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세계도서관정보대회에 참석하는 것도 반가운 일인데 개최하는 지역이 쉽게 가기 힘든 곳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이라 나에게서는 더욱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집을 떠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많이 가진다. 그래서 집을 떠나는 일이 거의 없고 직원연수도 가는 때보다 안가는 때가 더 많았다. 그렇지만 이번 만큼은 내가 꼭 하고 싶었던 것이기에 떠나는 부담이 상당히 큰 것이 사실이지만 세계도서관인들을 만나고 이해하고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레이기도 하였다.

트디어 출발!!!

8월 17일 인천에서 출발하여 홍콩을 경유, 요하네스버그 공항에 도착하였다. 집을 오랫동안 떠나 있으려니 집 걱정도 되었지만 걱정하지 말고 다녀오라는 식구들의 말에 힘을 얻어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더반까지 가는 동안 남아공이 멀긴 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 나라 특유의 냄새가 반갑지는 않았지만 이것도 색다른 맛이려니 생각을 했다. 우리나라도 특유의 냄새가 있을테니 말이다. 공항에서 처음 만난 분들이 많아 약간의 어색함은 있었지만 어색함은 짧게 편안함은 오래 갈 수 있었다.



박 종 레
서울교육대학교도서관 열람팀장
pj@s@snu.ac.kr



◀ 테이블마운틴에서 함께 간 동료들과 기념 촬영(맨 왼쪽이 필자)
 ▶ WLIC 등록 첫날 행사장

8월 18일

많은 시간을 기내에서 보내고 목적지인 터반에 도착하였다. 동행한 분들 모두 피로해 보였지만 공항에 들어서니 피로감은 많이 사라진 듯하였다. 터반이 다른 지역보다 특히 치안에 문제가 많다고 교육을 받고 갔다. 그러나 외관상으로 보는 터반은 너무나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었다. 그 나라 정치 상황이 아직은 안정이 안되다보니 내적으로는 복잡하다고 하나 외적으로는 그러한 변화를 느낄 수는 없었다. 대회 등록을 먼저 하고 호텔로 가기로 해서, 우선 공항에서 등록 장소로 갔다.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섞여서 그것도 한국어말이 아닌 영어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불안감이 엄습해 왔다. 영어를 능숙하게 할 수 없는 나 자신을 드디어 발견하게 된 것이다. 같이 간 분들과 무사히 등록을 마치고 우리가 머무를 숙소로 이동하였다. 그 날 밤 몇몇 동료들과 내 방에서 얘기를 나누었다. 서로 편하게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다. 역시나 같은 사서라서 쉽게 공감대가 형성되고 굳이 많은 말을 안해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라 생각이 들었다.

8월 19일

한국과 시차가 7시간이라 걱정은 되었지만 준비해 가지고 간 약을 먹고 자서 그런지는 몰라도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었다. 준비를 마치고 개막식(Opening Ceremony)에 참석했다. Geina Mhlophe씨 사회로 9:30~11:30까지 진행되었는데 Mhlophe씨는 남아공에서 유명한 작가라고 한다. 그녀는 아프리카 의상을 걸치고 나와서 그녀만의 색깔로 두 시간의 진행이 지루하

지 않게 우리를 압도하였다. 그리고 IFLA회장의 인사말, 판사인 Albie Sachs씨의 기조연설이 있었다. Sachs씨의 연설은 약간 지루했지만 동시에 감동을 안겨주었다. 그 후에 벌어진 공연, 특히 노래를 불러준 목소리가 미성이고 얼굴도 미소년 같던(여자라고 하는데도 나는 끝까지 남자로 착각했다.) 가수가 지금도 생각이 난다.

개막식 행사를 재미있게 보고 점심 식사를 한 다음 오후부터는 각자 관심있는 주제분야에 가서 들으면 되었다. 나는 도서관의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자료조직과 검색 분야 주제발표를 들으러 갔다. 주제발표가 끝난 후 청중 한 사람이 과연 서지통정을 이렇게 자세하고 세밀하게 다루는 것이 효율적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우리나라와 그런 부분은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다.

8월 20일

몇 군데 다른 주제도 가볍게 둘러보았다. 도서관도 시대 흐름이나 사회적 흐름에 강력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 도서관도 살아 남기 위해서는 기존 방식에 안주하면 안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해보고, 자기들의 관심분야에 가서 인기몰이와 상관없이 진지하게 듣는 모습도 인상적이었다. 또한 발제자들과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자기 의견을 개진하는 청중들의 모습도 배워야 할 점이라고 보았다.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저녁에는 Metro Beach Party가 있는 곳으로 갔다. 도착해 보니 해변가에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다. 풍성하게 차려진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서 같이 간 사람들과 이야기도 하고 춤추는 것도 구경하면서 약간의 감상에 젖기도 했다. 아프리카 정서가 나랑 맞는지 전통음악도 낯설게 느껴지지는 않았다.

8월 21일

도서관 마케팅 세션에서 싱가포르 발제자가 나섰는데 싱가포르를 확실하게 각인시켜 주었다. 일단 외모가 사람들에게 주목받았고 서서 점잖게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무대 밑에까지 내려와서 발표를 하니 우리가 집중을 안 할 수가 없었다. 외모는 여자인데 목소리가 남자였다. 너무 예뻐다. 주제 내용을 떠나서 마케팅 기법과 싱가포르 도서관에 대해서 확실히 마케팅을 하고 갔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 도서관에서도 이런 개성있고 튀는 사람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어 발표한 독일사서도 도서관 마케팅에서 도서관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 남아프리카공화국 국립도서관

이용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서가에 색시한 여자를 등장시켜 도서관에 대한 고정 관념을 깨고자 하는 노력도 엿보였다.

국립도서관을 방문할 때에는 우리나라의 국립중앙도서관을 떠올리며 갔다. 처음에 동영상으로 국립도서관 소개를 보고 현장을 둘러보았다. 일은 밀려 있는데 직원이 모자란 것이 우리 현실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다. 나중에 그 곳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물어보았더니 사서가 8명뿐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그럴 수 밖에...

8월 22일

EG Malherbe Library은 KwaZulu 대학도서관으로 건축, 법률, 음악도서관 분관을 가지고 있었다. 장서 규모로 봐서 내가 근무하고 있는 도서관 보다 약간 큰 규모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건물도 최신식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자료보관이나 청결은 잘 되어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학생들이 조용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저기 ‘silence(조용)’하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다. 이곳도 우리 교대도서관과 이런 것은 비슷하다는 생각에 사진을 찍으면서 웃었다. 그리고 법률도서관 로비에 교수와 동일하게 사서의 사진과 명단이 게시된 것을 보고 사서로서의 위상이 느껴지기도 하였다. 또한 도서관이 세워진 그 당시의 설계도면 원본을 잘 보관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자료의 중요성 및 소중함도 느꼈다. 자료의 소중함을 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자성의 기회였다. 음악도서관 분관에서 오랫동안 못 본 카드목록함을 보았을 때 옛 친구를 만난 것 같아 목록함을 뒤져 보았다. 카드 냄새도 좋았다.

그날 저녁에는 문화행사(Cultural Gala)를 관람하였다. 앉아서 볼 수 있는 문화행사인 줄 알았는데 서서 보자니 매우 힘들었다. 그리고 장관의 인사가 너무 길어 지루하기도 하고 등등 이유를 달고 끝까지 보지 않고 민속품 구경하다 숙소로 들어왔다.

8월 23일~24일

빅토리아 폭포는 짐바브웨와 남아공 두 곳에서 볼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이 날은 짐바브웨에서 보고 다음 날은 남아공에서 보기로 했다. 폭포 관람을 하고 잠베스강 크루즈호를 타고 유람하였다. 고향 생각이 날 만큼 분위기가 거부감이 없다. 나는 아프리카에 정감이 간다. 훗날 여기와서 살까?

저녁 만찬은 아프리카를 느낄 수 있는 풍경과 춤, 음식 등 분위기가 좋았다. 가족과 우리 직원들 생각이 났다. 같이 왔으면 더욱 더 좋았을 걸 하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8월 25일

빅토리아폭포는 무신론자인 나도 자연과 신에 대한 경외심을 품게 만들만큼 장관이었다. 폭포를 바라보며 한동안 말을 못하고 멍하니 있었다. 그야말로 자연이 만들어준 축복이라는 생각이 저절로 드는 그런 곳이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쓰면서 그곳에서 동료들과 재미있게 지냈던 일을 적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다. 이 지면을 통해 나와 같이 시간을 보낸 분들께 감사드리며, 시간 되면 다시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다. 그리고 꼭 하고 싶은 말은 도서관에서 묵묵히 열심히 근무하는 사서들에게 사기를 높이고 긍지를 갖게 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런 기회가 많이 주어져서 도서관에 대한 안목과 경험을 넓히고 현장에서 도서관에 근무하는 것에 대해 진한 애정을 갖게 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빅토리아폭포 ▶